

한국어

KBS 韩国语教学丛书

KBS 播音员教你学习

纯正韩国语

进阶篇

KBS播音室 韩国语研究会 ©编著

世界图书出版公司

KBS韩国语教学丛书

KBS播音员教你学习

纯正韩国语

(进阶篇)

● KBS播音室 韩国语研究会

世界图书出版公司

北京·广州·上海·西安

图书在版编目(CIP)数据

KBS 播音员教你学习纯正韩国语. 进阶篇/韩国 KBS 播音室韩国语研究会编著. —北京: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2007. 4

ISBN 987 - 7 - 5062 - 8660 - 2

I. K… II. 韩… III. 韩鲜语—口语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7)第 032149 号

Authorized Adaptation from the Korean Language edition, entitled KBS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바른말 고운말 compiled by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published by 한국방송출판(서울 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 - 16 벽산디지털밸리110 층).

Copyrights © 2003 Korean Language Studies Association of KBS Announcer Team
All Rights Reserved

The Simplified Chinese Edition in China © (2007) Beijing World Publishing Corporation through PK Agency,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书 名: KBS 播音员教你学习纯正韩国语(进阶篇)

作 者: 韩国 KBS 播音室 韩国语研究会

责任编辑: 陈 洁

出 版: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发 行: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地址:北京市朝内大街 137 号 邮编:100010 电话:64077922)

销 售: 各地新华书店和外文书店

印 刷: 北京世图印刷厂

开 本: 1/24

印 张: 15

字 数: 300 千

版 次: 2007 年 4 月第 1 版 2007 年 4 月第 1 次印刷

版权登记: 图字 01 - 2007 - 0640

ISBN 978 - 7 - 5062 - 8660 - 2/H·964 定价:28.00 元

版权所有 侵权必究

KBS播音室 韩国语研究会

KBS韩国语研究会创立于1983年4月23日，20多年来一直致力于播音语言的研究。

KBS韩国语研究会由KBS遍布全国各地的分支机构中的200多位播音员组成。每年都在接受国语学及语音学方面专家的指导后出版播音语言方面的论文集和推广纯正播音用语的资料集。迄今已经推出了《播音语言变迁史》、《标准韩国语发音大辞典》、《标准发音和朗读》磁带和《应该统一的南北语言和文字》等作品。为纪念KBS韩国语研究会成立20周年，播音员们将对本民族语言的热爱倾注到《KBS播音员教你学习纯正韩国语》一书中，以飨读者。

责任编辑：陈 洁

封面设计： 春天·书装工作室
www.ct1900.com

此为试读, 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前 言

今年是 KBS 开播 76 周年,同时又是公司成立 30 周年,意义深远。4 月还将迎来播音室韩国语研究会创立 20 周年纪念日,可谓喜上添喜。近来,随着广播电视影响力的扩大,播音语言在国民的语言生活中所占的比重日益增加,对国语文化的形成产生了不容小觑的影响。KBS 播音室充分认识到播音语言的重要性,为了普及正确的发音和文字,于 1983 年设立了韩国语研究会。此后,KBS 的播音员们在做好本职工作的同时,又肩负起保护并传播规范的韩国语的重任。

过去的 20 年中,韩国语研究会发表的论文汇编起来多达 53 本,还出版了《标准发音大词典》、《KBS 播音员教你学习纯正韩国语》、《播音员教程》等书籍,并以大众为对象举办巡回讲座,掀起轰轰烈烈的“正确使用韩国语”运动。除此之外,通过咨询委员会举办的研讨会,引发大众对“英语通用化”、“网络用语”等社会语言现象的关注,希望通过我们的努力,唤起民众维护韩国语的纯正并传递给子孙后代的责任意识。

“您好!这是 KBS 播音员纯正韩国语热线电话。

您是问该怎么称呼姑子的丈夫吗?如果是小姑子的丈夫,就叫‘서방님’,如果是大姑子的丈夫,就叫‘아주버님’。”

“孩子周岁宴叫‘돌잔치’,其中‘돌’以‘ㄷ’作为收音。”

播音室一天就能接到几十通类似的热线电话。

播音员们接到咨询电话后,认真地查字典,给予详细解答,并将正确表达应用于现场播音。

我们把热线电话中的内容和 KBS 电台及电视台播出的“KBS 播音员教你学习纯正韩国语”集结成册出版。谨以此书献给在忙碌的播音工作中抽时间解答提问,记录日志,勤勤恳恳地做纯正韩国语引路人的各位播

音员同事。

韩国语研究会的热线每天都能接到数十个来自观众和听众的有关正确使用韩国语的提问。从正确标记到汉字词的词源,从不该使用的日语残余到外来词的滥用,甚至还有称呼问题,形形色色,不一而足。有道是教学相长,很多时候,播音员对答案不是很确定,于是去翻字典,这样一来,自己也收获颇丰。观众或听众都认为我们是韩国语方面的专家,并给予我们支持和厚爱。感到幸福的同时,我们也体会到了神圣的使命感。

值此 KBS 韩国语研究会成立 20 周年之际,我们继 1998 年之后推出了第二本《KBS 播音员教你学习纯正韩国语》。与前书相比,本册书中收录了热线电话中问及的许多问题,与日常生活紧密相关,因此不仅能作为韩国语学习者的教材,而且对教师、学生和广播电视从业人员也非常有价值。

在此,谨向为了本书的出版不辞辛苦的播音室韩国语研究部等部门的人员和首尔大学国语文化研究所各位老师及使本书顺利问世的韩国放送出版的相关人士致以深深的谢意!

2003 年 4 月

KBS 播音室 室长 李明镕

以下谨供本书读者参考。

本书“[]”符号内的部分是单词或词组的发音;

“:”是表示该音节的元音要发成长音的长音标记。

第一部分

正确阅读, 流利会话

말씀 / 말	1	'남편'의 호칭어 / 지칭어	21
기온 읽는 법	2	독일 / 구라파	22
섭씨 / 화씨	3	서방님 / 도련님	23
눈썹 / 눈곱	4	'장(長)'의 장단	24
왔어요 / 왔었어요	5	익명 / 은닉	25
-(이)로라 / -노라	6	살살이 / 날날이	26
생각다못해	7	호명	27
조위금	8	잘못된 ㄴ 첨가	28
작열 / 작렬	9	단김에 / 단 말	29
겹받침 ㄹ의 발음	10	OO 해 주라	30
'네'의 발음	11	신다	31
문득 / 문뜩	12	'강권'의 발음	32
사돈 어른 / 사부인 / 사장 어른	13	살신성인(殺身成仁) / 뇌쇄(腦殺)	33
'활용'의 발음	14	'선열'의 발음	34
야반도주 / 절체절명 / 풍비박산	15	'절다'의 발음	35
내가 아시는 분	16	언제 미국에 들어가세요?	36
여쭙다 / 뵙다	17	시부모님의 호칭어와 지칭어	37
생로병사 / 불로장생	18	이름 소개	38
소질이 계시다	19	할부 / 할부	39
말씀이 계셨습니다	20	홍역을 치르다	40
		노상 / 맨날	41
		만족스러운 / 만족스런	42
		-던지 / -든지	43



'딛다'의 활용형	44	되고 / 돼고	67
발효 중인 가운데	45	영어 번역 한자어-은막 / 각광 / 밀월	68
'오천 년'의 발음	46	군색하다 / 궁색하다	69
'발병'의 발음	47	아니꼽다	70
조강지처(槽糠之妻)	48	접두사 '생(生)-'	71
고의적인 방화	49	인정은 바리로 싼고 진상은 꼬치로 쎌다	72
'직접'의 발음	50	부아가 나다	73
자음 동화	51	에다 / 에이다	74
대가(代價)	52	숨겨[숨겨]	75
숫자의 장단	53	선친 / 선대인	76
안스럽다 / 안쓰럽다	54	음덕양보(陰德陽報)	77
'남용'의 발음	55	끈 떨어진 두레박	78
'처세'의 발음	56	등화가친(燈火可親)	79
연구실 팻말	57	산통이 깨지다	80
동병상련 / 동병상린	58	굶직굶직하다	81
세배 드리는 예절	59	백중지간(伯仲之間)	82
자유분방 / 자유분망	60	심금을 울리다	83
벽창호 / 벽창우	61	절맞다	84
낙양의 지가를 올린다	62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85
수어지교(水魚之交)	63	십상이다 / -기 십상이다	86
두텁다 / 두텁다	64	[서울지방] / [서울찌방]	87
'뺏다'의 활용	65	맹기다 / 당기다	88
서낭당	66	'안간힘 / 인기척'의 발음	89

이의(異意) / 의의(意義)	90	노적거리	109
○○○씨 / 선배님	91	어깃장을 놓다	110
안 청소하다	92	발사돈 / 발걸이	111
매형 / 자형	93	갈마들다 / 갈마취다	112
야단 / 꾸지람	94	모꼬지	113
손수 / 직접	95	멍에 / 코뚜레	114
불편부당하다	96	이바지	115
삼천갑자 동방삭	97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116
너가/네가, 저가/제가	98	진솔	117
백안시(白眼視)	99	제비초리	118
신경 끄다	100	땀 / 울	119
청출어람(靑出於藍)	101	다듬이질	120
파죽지세(破竹之勢)	102	둔치 / 갯길	121
		마파람 / 된바람...	122
		반딧불이	123
		젓불 / 결불	124
		예부터 / 옛부터	125
		신소리 / 흰소리	126
		고수레 / 님두리	127
		부라부라	128
		갓- / 돌-	129
		미주알고주알	130
		한가위	131

第二部分

正确辨析，体会魅力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103
터울	104
사리 / 조금	105
잠방이 / 핫옷	106
다리품을 팔다	107
갈무리하다	108



第三部分

正确理解, 规范书写

분다 / 불다	132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152
‘-아/어지다, -아/어하다	133	시발 / 효시	153
노름 / 놀음	134	영남 / 호남	154
알 / 알음	135	벌초 / 금초 / 사초	155
태깅스럽다	136	당나귀 / 나귀	156
견잡다 / 겹잡다	137	빌미 / 구실 / 계기	157
씨가 안 먹힌다	138	둘째, 셋째, 넷째	158
묵돈 / 뭇돈	139	경신 / 갱신	159
방대하다	140	들르다 / 들리다	160
추호도 없다	141	소꿉장난 / 짱충깡충	161
한 벌 / 한 죽	142	틀리다 / 다르다	162
뺨이라 / 뺨어라	143	남 / 여	163
띄어쓰기	144	손 없는 날	164
화사하다	145	지양 / 지향	165
터무니없다	146	백의 종군	166
발이 길다	147	장애 / 장해	167
숫자의 띄어쓰기	148	괴발개발	168
‘발다’의 의미	149	다량 / 대량	169
다디달다	150	모내기 하다	170
장안에 화제	151	여직껏 / 좀체로	171
		날아 / 날라	172
		내리- / 치-	173
		한나절 / 만나절	174

'결'의 의미	175	교통대란 / 교통난	198
편뜻/언뜻, 영관/아주	176	갈매기살 / 횡격막	199
-째 / -채	177	홍청거리다	200
탕평채 / 신선로	178	추돌 / 충돌	201
몇 일 / 며칠	179	하룻강아지	202
식혜 / 식해	180	무쇠	203
관건 / 관계	181	눈살 / 눈썹	204
봉오리 / 봉우리	182	따리 / 또아리	205
학을 댄다	183	조리다 / 줄이다	206
떠다 / 떠다	184	-다라는	207
난장판	185	삭이다 / 삭히다	208
되 / 말 / 섬 / 석	186	복사뻘 / 복숭아뻘	209
잘 맞고 있습니다	187	삼십육계 줄행랑	210
뒷심 / 땅심	188	심심하다	211
흔동 / 혼돈 / 혼란	189	-게끔	212
백서 / 청서	190	불그락 푸르락	213
합방 / 합병	191	-에 / -에게	214
방년 / 꽃나이	192	머나먼 고향	215
애동대동하다	193	토를 달다	216
주년 / 주기	194	시건 장치	217
OO보다 다르다	195	쓰이는 용도	218
웬 / 웬	196	시간의 표현	219
느리다 / 늦다	197	기리다	220

단합 / 답합	221	성장하다 / 신장하다	244
매우다 / 메꾸다	222	'드디어'의 사용법	245
당하다	223	개발 / 제발	246
구절 / 귀절	224	운영/운용, 결재/결제	247
옷걸이 / 옷거리	225	금슬 / 금실	248
손쉽다	226	시험 / 실험	249
주관 / 주최 / 협찬 / 후원	227	연임 / 중임	250
머물어 / 머물러	228	'제(第)'의 띄어쓰기	251
가르마 / 가리마	229	재판 / 2쇄	252
되도록 / 될수록	230	공화국	253
뜯어지다 / 뜯어지다	231	추적 / 추격	254
단출하다	232	'여간(如干)'의 용법	255
돌 / 뚫	233	눌은밥 / 누른밥	256
전하 / 패하 / 슬하	234	-느라고 / -노라고	257
머리말	235	올 겨울 / 강추위	258
햇빛 / 햇별	236	해후(邂逅) / 상봉(相逢)	259
내년 / 이듬해	237	'-투성이'의 사용	260
조선 / 이조	238	주요하다/중요하다	261
찌개 / 육개장 / 깍두기	239	백전백승(百戰百勝)	262
사족	240	역임(歷任)하다	263
무르다 / 물리다	241	혹성 / 행성	264
꼬리 / 꼬지	242	올귀먹다 / 우려먹다	265
묘령의 여인	243	'중(中)'의 띄어쓰기	266

目 录

간(間)의 띄어쓰기	267	넘보다 / 넘겨다보다	290
거리 / 꺼리	268	접두사	291
농히	269	햄쌀 / 뎡쌀 / 찹쌀 / 입쌀	292
혜존(惠存)	270	-네요 / -으네요	293
차례(茶禮)	271	보우 / 보호	294
곰빼기 / 뚝배기	272	수두룩하다/흔하다, 부지기수/비일비재	295
떼어 논 당상	273	심상치 않다	296
쇠다 / 세다	274	후미지다	297
농성(籠城)	275	할망구	298
망년회	276	바가지를 긁다	299
불우 이웃	277	3배 이상 싼값으로	300
임대 / 임차	278	자새우다 / 새우다	301
숙맥	279	뗏다방 / 뗏다방	302
갈모 형제	280	-지거리 / 짓거리	303
낙관(落款)	281	가늠하다 / 가름하다 / 갈음하다	304
잇다 / 잃다	282	설거지 / 애달프다 / 자두	305
까먹다 / 잊어버리다	283	안전 / 안정	306
실랑이 / 승강이	284	그을리다 / 그슬리다	307
절구 / 방아	285	나가다 / 나아가다	308
강남(江南)	286	이상 / 이하	309
기별(奇別)	287	나누다 / 노느다	310
안전 사고	288	봐지다 / 보여지다	311
'-오' / '-요'	289	비위/비우, 바위/바우	312



第四部分

正确书写, 洋为“韩”用

보브 / 밥	313
다라이 / 함지	314
‘마이’의 올바른 사용	315
잇빠이 / 만땅	316
후지 사과	317
뷔페 / 데뷔	318
땡땡이	319
아다리	320
다이 / 대	321
땃기리 / 데땡	322
‘빈 라텐’의 발음	323
커피숍 / 테이프	324
브릿지 / 블리치	325
가방 모찌를 하다	326
기마이 쓴다	327
미싱	328
플라멩코	329
슈퍼 / 수퍼	330
단도리	331
계눔 / 지눔 / 유전체	332

에티오피아	333
커밍아웃(coming-out)	334
가디건 / 카디건	335
사운드[싸운드]	336

索引



말씀 / 말

존대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말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주로 어미 ‘-시-’에 의해서 존대법이 실현됩니다. 그런데 몇몇 어휘들은 높임이나 낮춤의 형태가 따로 있어서 상대방을 높이거나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어휘들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높임말로는 ‘진지’나 ‘연세, 성함, 닻’ 같은 것이 있고, 낮춤말로는 ‘저, 저희’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와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말을 ‘말씀’으로 높여 말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흔히 ‘말씀’은 ‘말’의 높임말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웃어른에게 하는 자기의 말’을 뜻하는 낮춤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웃어른 앞에서 자신의 말을 가리켜 말할 때는 ‘말씀’이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쓰인 높임말로서의 ‘말씀’과는 달리, 여러 사람 앞에서나 어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도 ‘말씀’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기온 읽는 법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반대로 기온이 높아질 때는 내일 기온은 몇 도나 될까 하고 관심을 더 갖게 되지요. 우리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온도를 말하는 표현을 알아봅니다.

방송에서 현재 기온이나 그 날의 최고 기온 또는 최저 기온을 말하는 것을 잘 들어 보면, '영하 8점 7도' 라든가 '5점 3도' 와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영하 8도 7분' 이라든가 '5도 3분' 과 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업진흥청에서 국제단위계에 따라 정한 법정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국제단위계는 각도의 경우는 '도(degree), 분(minute), 초(second)' 를 보조 단위로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온도의 경우에는 '도' 만 인정하고 그 하위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나 학계 또는 교육계 등에서는 이를 원칙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